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이란?

커뮤니티 매핑이란?



커뮤니티매핑은 지도 만들기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지역사회)에 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커뮤니티매핑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발견하고, 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의 정보는 곧 주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정보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끝으로 커뮤니티매핑은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소통과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을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2. 커뮤니티매핑의 기대효과(6E)



- **교육(Education)**: 참여자가 그 지역과 관심분야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있는 혹은 새롭게 제공되는 새로운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은 지역에 대해 새롭게 학습하며 여러 주체들과 소통할수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시각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익힘과 동시에 자신이 해결의 주체임을 깨닫게 된다.
- **참여(Engagement)**: 자연스러운 참여과정에서 배움이 극대화되며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관심있는 일정 주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주민들간의 소통이 촉진되며 자연스럽게 해결안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연결되곤 한다.
- **역량강화(Empowerment)**: 커뮤니티매핑이라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의견과 시각을 담은 정보 전달을 통해 더욱 능동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효과(Effectiveness): 커뮤니티매핑은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이 가진 문제와 이슈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알릴 수 있다. 또한 문제와 이슈의 패턴이 시각화되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효율(Efficiency): 커뮤니티매핑은 워크숍 과정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동시에 데이터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효율적으로 할수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프로세스와 커뮤니티 자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 평등(Equity): 커뮤니티매핑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한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커뮤니티매핑을 제공하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평등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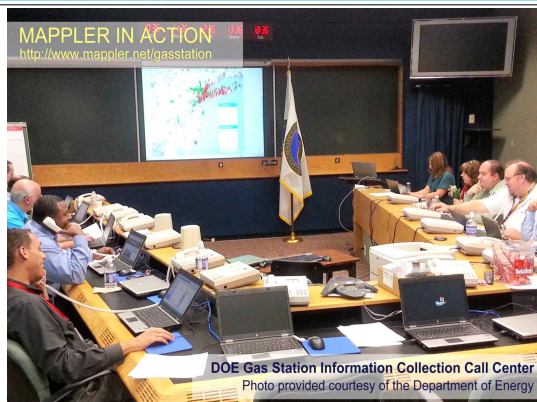
(별첨)관련 추진사례

사례 1) 허리케인샌디 재난관리 (재난방지에 큰 기여를 한 커뮤니티매핑)

2012년 미국 뉴욕과 뉴저지 부근을 강타한 가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뉴저지 지역의 80%의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주유소의 기름 공급이 어려워져 큰 혼란이 야기됨.

임완수 박사와 남미계 학생들이 주유가능한 주유소의 위치와 정보를 커뮤니티매핑을 해 시민들에게 제공함. 이 지도는 실시간으로 미국 에너지국 콜센터에서 사용되었고, 연방재난국 재난지도, 구글 재난맵에서도 실시간 제공됨.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함. 또한 정부에 필요에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사례 2) 커뮤니티매핑 교육: IMSOCIO 청소년

아임소시오는 뉴저지 지역의 남미고등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여름방학 주말 커뮤니티매핑교육프로그램과 학생커뮤니티를 의미함.

아임소시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1)정보기술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고 (2)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3)리더십을 개발하고, (4) 소속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됨.

파인그로브 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통학 안정성 커뮤니티매핑을 시작으로 그 외 지역 내 시설과 건물 커뮤니티매핑과 쓰레기 등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함.



사례 3) 송덕초등학교 어린이 유해시설 및 교통안전지도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송덕초등학교 학부형, 초등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 학교주변 생활지역 형성을 목적으로 유해시설과 교통안전관련 요소들을 조사한 커뮤니티매핑.

커뮤니티매핑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 및 학생들의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 또한 성북구청과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향상되었으며, 공동체 내 중요한 수용과 화합, 사랑, 이타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와 문화를 형성하게 됨.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지도는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조사하여 학교주변 순찰시 유용하며, 데이터를 지역주민과 성북구청과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과 개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효율적인 계획 및 개선의 일환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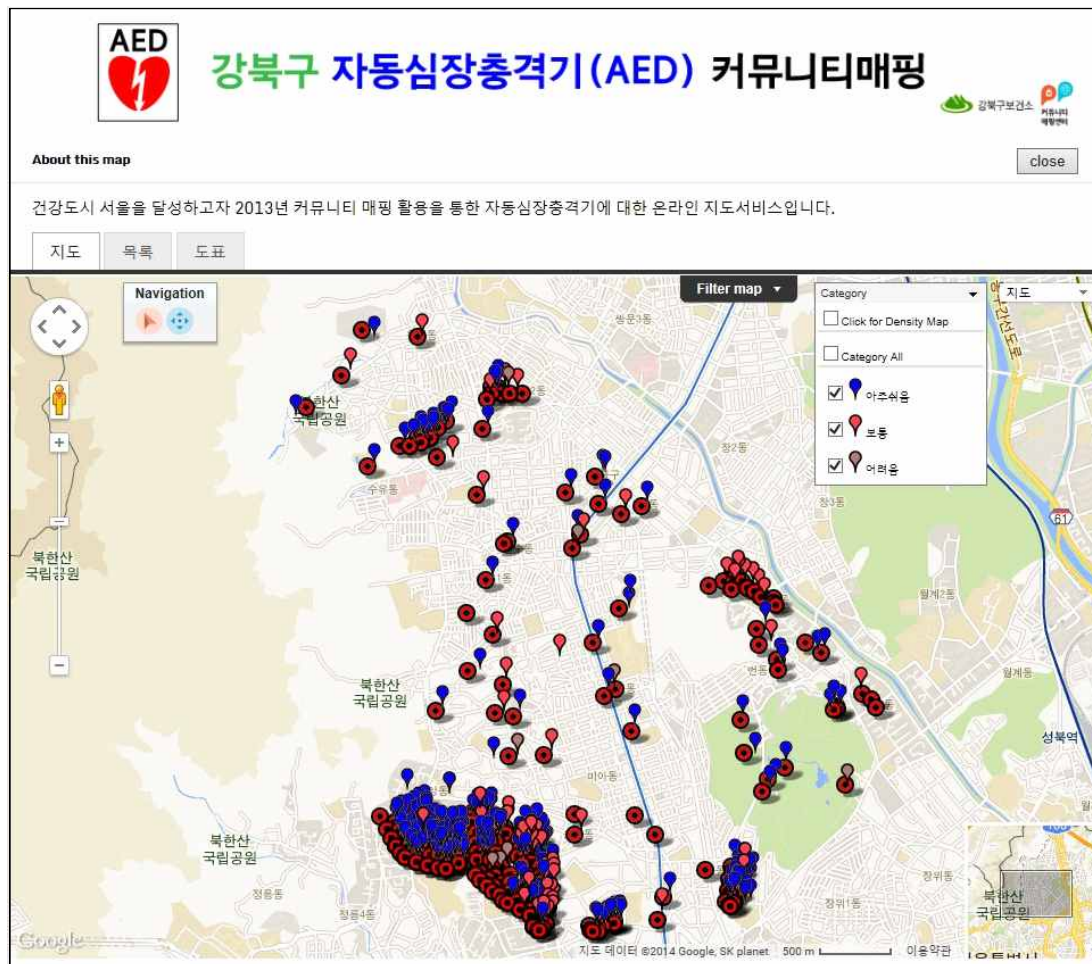
사례 4) 장벽없는 은평

불광역 주변에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조사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음식점에 접근 가능/불가능한 곳인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매핑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접근 불편한 음식점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사례 5)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서울시 자동제세동기 관리사업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강북구가 선정되어 강북구에 있는 315개의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함. 서울시 전역의 7,000여개 자동제세동기 관리방법으로 커뮤니티매핑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참가 주민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진됨.



소개: 사단법인 커뮤니티매핑센터

(사)커뮤니티매핑센터는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주민과 시민이 지역사회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안을 도출해내는 사회혁신기관이다.

(사)커뮤니티매핑센터는 커뮤니티매핑프로세스를 활용한 교육, 워크숍, 관련 책자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매핑 활동가 양성과 더불어 재난관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공공서비스에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개: 임완수(Wansoo IM) 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

임완수 대표는 1994년부터 미국에서 VERTICES,LLC 및 커뮤니티매핑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Mapping)을 운영해오고 있다.

럿거스에드워드블러스틴 학교의 계획-공공정책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공공참여형, 상호교류형 매핑기술을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전파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머해리 의과대학에서 조교수 겸, 뉴저지 주립럿거스 대학의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머해리 의대에서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의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 지난 4년간 커뮤니티매핑을 소개하며 다수의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2013년 3월 사단법인 커뮤니티매핑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을 맡고 있다.

